

		<b>보 도 자 료</b>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인천광역시	
		배포일자	2021년 4월 2일(금) 총 5매		
담당 부서	시민정책 담당관실	담당자	• 시민참여지원팀장 박혜영 ☎440-2416 • 담당자 조영희 ☎440-2418		
<b>사진</b>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b>참고자료</b>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b>보 도 시 점</b>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청원#38〉 시민시장님께 답변드립니다.

**인천시, 산곡동 공병부대 부지 조화로운 공간으로 조성할 것!**

**- 부평구, 2021년 하반기 예비우선시행자 공모 추진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2일, ‘산곡동 공병부대 부지 복합쇼핑몰 유치’를 요청하는 온라인 시민청원에 공식 답변했다.

김기문 인천시 원도심재생조정관은 영상답변을 통해 “과거 제1113공병단이 위치했던 청천동 325번지 일원은 오는 5월 산곡역 개통과 8개 구역 정비사업 추진 등과 더불어 새로운 변화를 앞두고 있는 곳”이라며, “특별계획구역 중 개발가능용지 3만4천 제곱미터 부지는 공모로 선정한 사업자의 세부개발계획을 검토하여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1113공병단 부지는 도심 내 군부대 이전지 중 가장 먼저 개발이 시작되는 6만7천 제곱미터 규모의 사업구역이다.

- 부평경찰서 이전부지 등을 제외한 5만2천 제곱미터 규모의 특별계획 구역 중 1만8천 제곱미터 부지는 공원과 도로로 조성해 시민들의

새로운 역세권 주변 문화생활공간으로 환원할 계획이며,

- 나머지 개발가능용지 3만4천 제곱미터 부지는 공모로 선정한 사업 시행자의 세부개발계획을 검토하여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2월 개정된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준주거지역과 근린상업지역 내에는 매장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 대규모 점포 입지를 제한하고 있으나, 대규모점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별도의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 이에, 올해 하반기 계획된 예비우선시행자 공모과정에서 “복합쇼핑몰 건립사업을 제안하는 사업시행자가 있을 경우 교통수요 대비 대책, 공원시설 확보 등 공공기여분에 대한 이행을 전제로 지구단위계획 변경 가능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할 계획” 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조정관은 “기존 상권에 미칠 수 있는 영향뿐만 아니라 주민, 관계기관, 소상공인 등 다양한 분들과 소통하며 인근지역 주민과 입주 예정 주민 모두가 조화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가겠다” 고 밝혔다.

답변 영상과 내용은 ‘인천은 소통e가득’사이트(<http://cool.incheo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답변원고

## 온라인 시민청원 영상답변 원고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원도심재생조정관 김기문입니다.

‘산곡동 공병부대 부지 복합쇼핑몰 유치’ 청원에 공감해주신  
3,355명의 시민 시장님들께 감사드리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 제1113공병단이 위치했던 청천동 325번지 일원은  
오는 5월 산곡역 개통과 8개 구역 정비사업 추진 등과 더불어  
새로운 변화를 앞두고 있는 곳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산곡·청천지역, 나아가 부평구 전체의 활성화로  
이어지길 바라는 시민 여러분의 간절한 염원에  
우리 시 또한 깊이 공감하며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담당하고 있는 부평구청 역시  
시민 여러분의 염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1113공병단 부지는 도심 내 군부대 이전지 중  
가장 먼저 개발이 시작되는  
6만7천 제곱미터 규모의 사업구역입니다.

부평구에서는 부대 이전 이후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산곡역 개통 등 새롭게 변화하는 주변 여건과의 조화를 위해  
지난해 9월 ‘제1113공병단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였고,

시에서는 부평경찰서 이전부지 등을 제외한  
5만2천 제곱미터 규모의 특별계획구역을 지정하였습니다.

지정 구역의 35%에 해당하는 1만8천 제곱미터 부지는 공원과 도로로 조성해  
시민들의 새로운 역세권 주변 문화생활공간으로 환원할 예정이며,  
나머지 개발가능용지 3만4천 제곱미터 부지는  
공모로 선정한 사업시행자의 세부개발계획을 검토하여 결정할 계획입니다.

지난 2월 개정된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지역 상권 활성화와 중·소상인 보호의 조화를 위해  
준주거지역과 근린상업지역 내에서는  
매장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 대규모점포 입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규모점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별도의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2월 5일,  
부평구는 해당 구역의 도시개발사업 예비우선시행자 공모 용역을 발주하였고,  
빠른 시일 내에 공모지침을 마련해  
금년 하반기 예비우선시행자 공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와 부평구는 공모 과정에서  
복합쇼핑몰 건립사업을 제안하는 사업시행자가 있을 경우,  
교통수요 대비 대책 및 시민 편의를 위한 공원시설 확보 등  
공공기여분에 대한 이행을 전제로  
지구단위계획 변경 가능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 여러분의 의견입니다.  
기존 상권에 미칠 수 있는 영향뿐만 아니라  
주민, 관계기관, 소상공인 등 다양한 분들과 소통하며,  
인근지역 주민과 입주예정 주민 모두가 조화롭고 행복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인천시는 산곡동 공병부대 이전 부지 재생사업을 시작으로  
도심 내 단절되고 막혔던 공간을  
연결과 소통의 공간으로 바꾸는 작업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그 과정의 중심에는 언제나 시민이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소통하며 꼼꼼히, 세심히 챙겨가겠습니다.

인천 발전을 위한 큰 관심을 갖고 제언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